

Research Center

2015년 3월 30일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4월 전략 : 말괄량이 길들이기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부진, 실적 우려 등에 주요 이머징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영풍정밀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모비스 외 5개 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 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 증권	구 분		3/20(금)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종합주가지수		2,037.24	2,036.59	2,041.37	2,042.81	2,022.56	2,019.80
	등락폭		-0.65	-0.65	4.78	1.44	-20.25	-2.76
	등락종목	상승(상한)	408(8)	433(8)	484(5)	467(8)	341(6)	368(9)
		하락(하한)	410(0)	367(1)	315(0)	324(0)	457(0)	447(1)
	ADR		109.37	107.90	107.47	107.82	105.05	103.68
	이격도	10 일	101.68	101.43	101.38	101.14	99.88	99.58
		20 일	101.97	101.76	101.84	101.78	100.69	100.47
	투자심리		40	4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52	315	329	423	342	443
거래대금	(십억 원)	5,195	4,686	4,665	5,109	5,155	5,035	
코스닥	코스닥지수		640.08	640.29	641.87	651.05	642.53	640.12
	등락폭		8.27	0.21	1.58	9.18	-8.52	-2.41
	등락종목	상승(상한)	408(12)	433(23)	484(12)	467(24)	341(12)	374(7)
		하락(하한)	410(4)	367(3)	315(6)	324(4)	457(2)	610(5)
	ADR		106.33	104.90	103.21	105.04	100.51	95.48
	이격도	10 일	101.51	101.37	101.30	102.24	100.67	100.20
		20 일	102.04	101.87	101.96	103.13	101.58	101.07
	투자심리		40	4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579	530	526	535	552	577
	거래대금	(십억 원)	3,368	3,011	2,659	3,482	3,594	3,15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유 가 증 권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매수	2,656.8	1,297.6	1,053.0	351.3	109.2	191.1	78.8	25.2	297.377	50.9
		매도	2,502.2	1,392.9	1,073.1	208.5	110.5	329.7	75.3	60.6	288.5	90.2
		순매수	154.6	-95.3	-20.1	142.7	-1.3	-138.5	3.5	-35.4	8.9	-39.2
		3월 누계	163.7	2,635.2	-2,646.7	-1,472.9	224.1	-1,836.1	-286.1	27.4	696.9	-152.3
		15년 누계	-1,392.9	2,918.1	-2,788.2	-2,347.8	86.9	-2,450.7	-387.8	134.2	2,177.0	1,262.9
코 스 닥		매수	2,869.1	135.2	150.8	45.3	18.1	30.9	12.8	5.0	38.6	25.2
		매도	2,786.5	185.9	178.7	61.1	21.4	45.1	9.6	6.5	34.9	29.2
		순매수	82.6	-50.6	-27.9	-15.8	-3.3	-14.2	3.2	-1.5	3.7	-4.0
		3월 누계	512.5	-84.6	-290.6	6.6	-52.3	-120.6	-53.4	14.1	-84.9	-137.3
		15년 누계	546.0	-208.7	182.7	-107.2	153.8	2.3	-85.7	18.8	200.7	-520.0

4월 전략 : 말괄량이 길들이기

2015년 Target KOSPI	2,130pt
12MF PER	10.19배
12MF PBR	0.97배
Yield Gap	8.0%P

- ▶ 2분기는 조정 시 매수 : 이번 조정은 경기 회복 중 겪는 필연적인 과정
- ▶ 4월 KOSPI 예상 밴드 : 1,950~2,060pt
- ▶ Top Picks :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키움증권,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열광적
반응 : 그러나 2분기에는
경계가 필요**

■ 투자전략 : 말괄량이 길들이기

비관론이 난무했던 연초와 달리 지난 1분기 시장의 퍼포먼스는 화려했다. KOSPI는 1,870선을 바닥으로 10%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은 인덱스 자체가 20% 상승했다. OCI(+33.6%), 롯데케미칼(+22.2%) 등 한계기업들이 화려하게 부활했고 한미약품(+152%), 셀트리온(+95.9%) 등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2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했다. 아모레퍼시픽(+51.9%), 한국콜마(+45.5%) 등 화장품 업종의 선전도 여전했다.

이러한 시장 강세는 기본적으로 1) 유가 하락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2) 유동성 장세의 영향이 컸다. ECB가 매달 600억 유로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전격 발표하고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머징 국가들까지 금리인하에 동참하면서 전세계 금리 레벨이 또 한 단계 내려갔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니, 자본시장 태동 이후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

3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자기확신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인내심(patient)’이라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합리적으로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들 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문구가 추가됐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모두 내려간 걸 보니 금리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열광적 반응은 일정 부분 경계가 필요하다. 미국 경기는 속도와 강도의 문제일 뿐 방향 자체는 회복이다.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시장은 불안해 할 것이다. 엘런과 시장 간 기준금리에 대한 인식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어쨌거나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연준은 금리인상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는데, 시장에서는 막연하게 연준이 더 인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즈는 ‘엘런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Moon Walk) 춤을 추고 있다.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뒤로 가고 있다’면서 저금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타날 시장의 충격을 우려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2분기 시장은 한 차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현 지수대에서는 추가 상승에 베팅하기보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2분기 시장 한 차례 출렁일
가능성 높아 : 조정시 매수
관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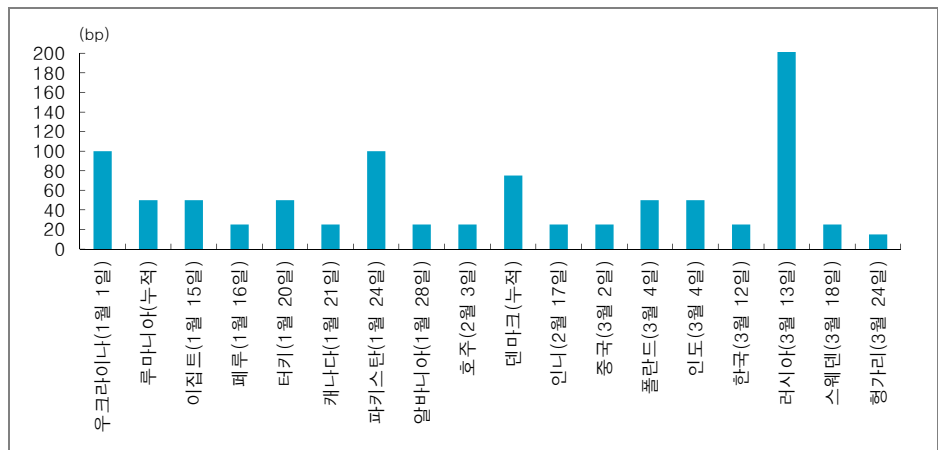
그러나 2015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방향은 회복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13~14년과 달리 이번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필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장을 더 강하게 보고 있으며 2분기 조정을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1. 말괄량이 길들이기 (1) : 그리스

전세계가 유동성 열풍이다. ECB의 전격적인 양적완화를 필두로 루마니아, 이집트, 페루,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까지 금리인하에 동참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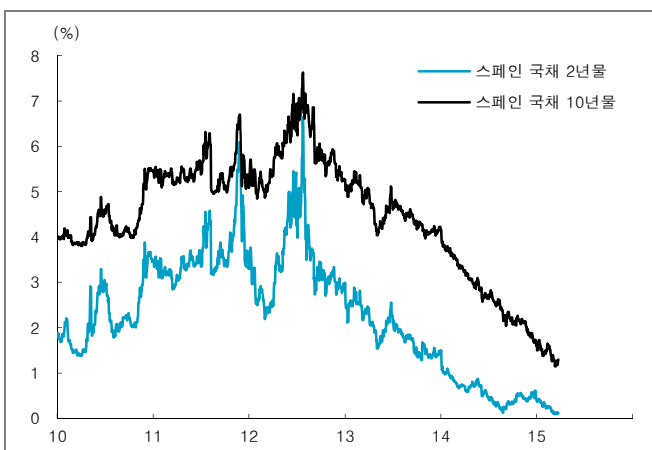
이 때문에 글로벌 금리 수준은 유례없이 낮아졌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9%인데 독일 금리가 0.23%이고 한 때 재정위기로 손가락질 받았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8%, 1.7%에 불과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미국보다 60bp 낮은 1.3%에 거래되고 있다.

[그림 1] 2015년 들어 금리를 인정한 국가들



주: 금리인하 폭은 누적이며, 2회 이상 인정한 국가들은 최근 인하 일자를 기록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스페인 국채 금리 하락세 지속



자료: Bloomberg

[그림 3] 스페인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60bp 더 낮아



자료: Bloomberg

그리스 국채금리 상승 : 일드커브 역전 현상 발생

그런데 유일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다. 그리스 국채금리는 레벨도 레벨이지만 3년물이 20%, 5년물이 16%, 10년물이 10.8% 수준으로 일드커브 역전이 일어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ECB가 월간 600억 유로 규모로 양적완화를 시작했지만 매입 대상에서 그리스 국채가 제외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대형은행들에 그리스 단기물 국채 매입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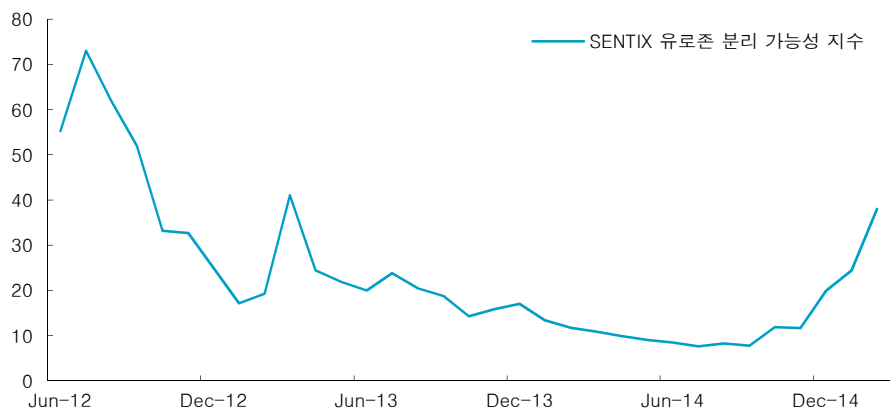
그리스는 6월 말까지 구제금융 관련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의 비타협적 태도와 고집스러움에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강력 비판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그렉시트(Grexit) 우려가 재차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최근 센틱스 유로존 분리 가능성 지수(Sentix Euro Break-up Index)는 38%까지 상승하며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 유로존 탈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탈퇴를 결정한다 해도 1) 협의절차 자체가 복잡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2) 금융/국방/무역/정보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3) 새로운 화폐 사용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로 채권 및 채무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그렉시트(Grexit)의 현실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스 상환일정 도래 : CDS 프리미엄 상승, 뱅크런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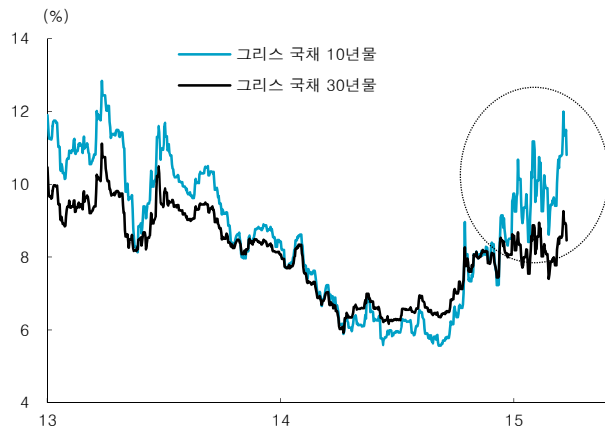
그러나 말 안듣는 그리스를 길들이기 위해 독일이 강경노선을 고집할 경우 시장은 불안해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스는 3월 16일 IMF 차관상환(5.8억 유로)을 완료했지만 4월 31.6억, 5월 35.9억, 6월 52.9억, 7월 68.6억 유로 등 상환 일정이 계속 도래해 일시적 디폴트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ECB가 그리스 은행의 단기국채 소화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단기국채 발행이 어려워진데다 세입 축소로 재정수지까지 지속 악화되고 있다. 그리스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최근 1,900bp까지 상승해 일시적 디폴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 SENTIX 유로존 분리 가능성 지수 38%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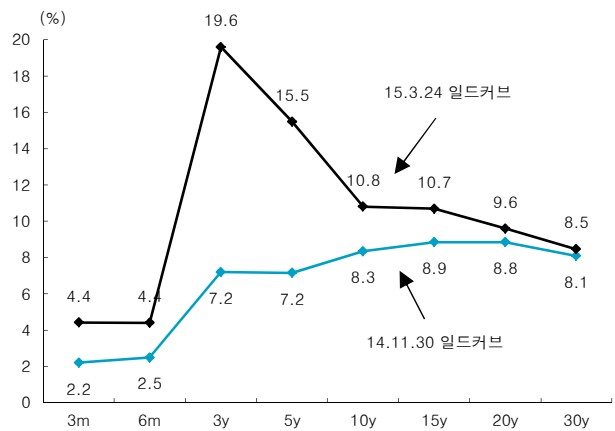
자료: Sentix

[그림 5] 그리스 국채금리 급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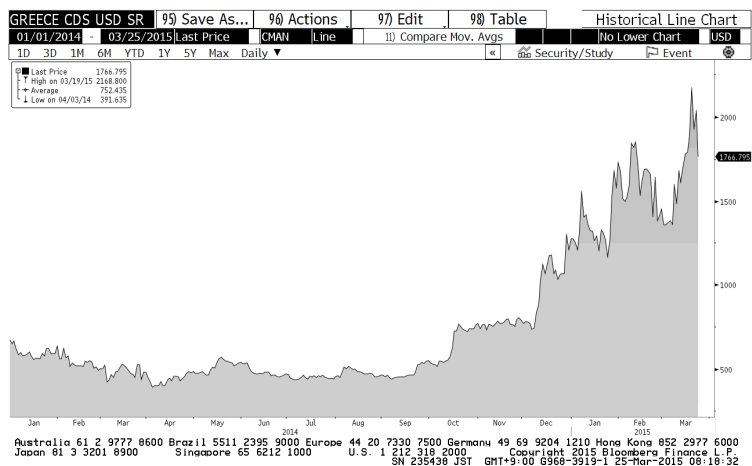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6] 그리스 일드커브 역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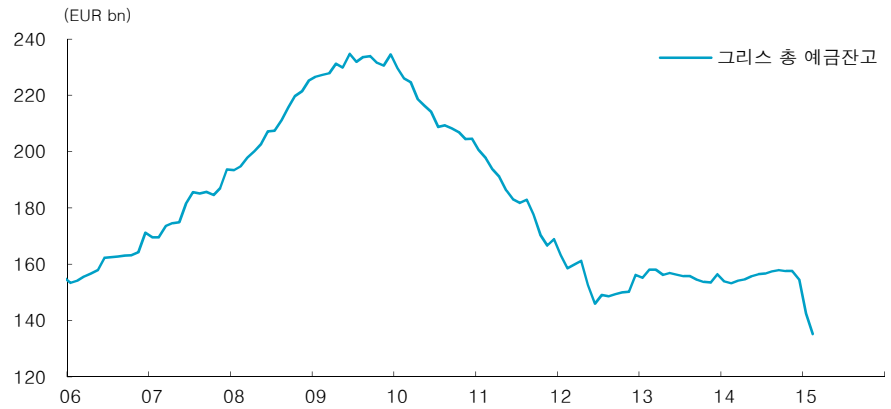
[그림 7] 그리스 CDS 프리미엄 상승세



자료: Bloomberg

게다가 정치적, 경제적 불안감이 겹치면서 그리스 은행에서 예금이탈, 즉 뱅크런 (bank run)이 나타나고 있다. 치프라스가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1) 세원 확보를 위해 탈세(脫稅)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대적으로 나선데다, 2) 독일과 대립각을 높이면서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스의 총 예금잔고는 2014년 11월 말 기준 1,575억 유로였지만 12월 1,545억 유로, 2015년 1월 1,424억 유로, 2월 1,351억 유로로 3개월만에 200억 유로(14.2%)가 감소했다.

[그림 8] 그리스 뱅크런 가속화



자료: Bloomberg

그렉시트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한 우려로
시장 출렁일 가능성 있어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2011~12년보다는 파급력이 약할 것이다. 그리스와 달리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건축 반대를 주장하는 급진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낮아져 전염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기관도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독일의 ‘그리스 길들이기’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시장은 그렉시트 우려에 크게 출렁일 수 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제 잊혀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치게 낮아진 유로존의 금리 레벨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말괄량이 길들이기 (2) : 인플레이션과 엘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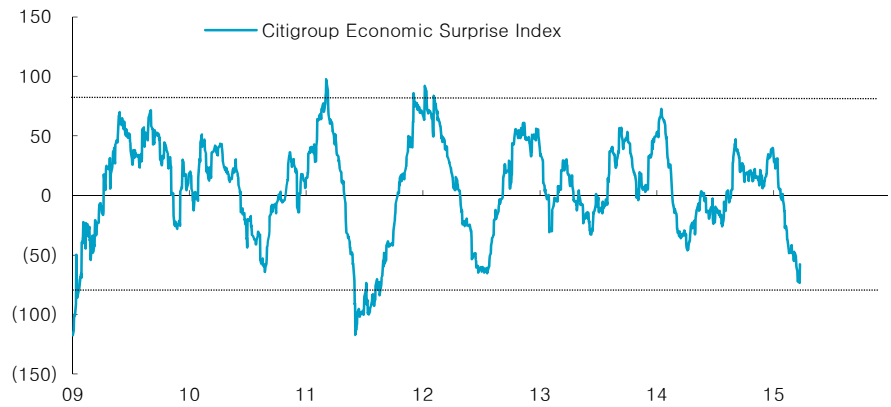
시티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반등 기미
: 미국 조기 금리인상 우려
재점화 가능성 높아

지난 1분기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정 부분 미국 경제가 별로였기 때문이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치에 계속 미달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 유동성 장세 지속 가능성에 베팅하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시티그룹이 측정하는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Citigroup Economic Surprise Index)는 작년 12월 29일을 고점으로 3개월 내내 줄기차게 떨어졌다. 3개월 내내 미국의 경제지표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미치면서 실망감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미국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신흥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상황이 바뀔 것 같다. 통상 시티그룹의 서프라이즈 지수는 +80~-80의 일정 밴드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이 지표가 -73.3을 기록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준이 크게 낮아진 상태라, 앞으로는 경제지표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준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림 9]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 이제 바닥치고 반등할 차례



자료: Citigroup,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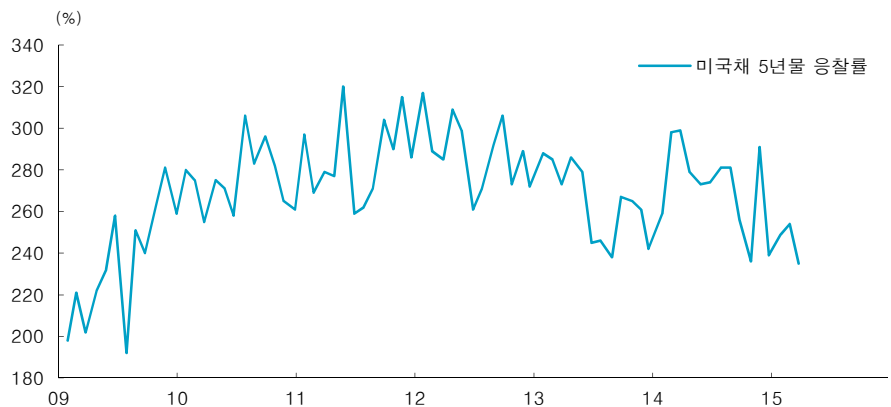
3월 FOMC에서 옐런은 ‘인내심(patient)’이라는 문구는 삭제했지만 ‘합리적으로 확신할 때(reasonably confident)’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표현을 바꾸고 GDP와 물가 전망치를 모두 하향해 조기 금리인상 우려를 차단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옐런의 이러한 온순한 화법이 시장에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기는 속도와 강도의 문제일 뿐 방향 자체는 회복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파이낸셜타임즈가 ‘옐런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Moon Walk) 춤을 추고 있다.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뒤로 가고 있다’면서 저금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타날 시장의 충격을 우려한 것은 일리가 있다. 시장의 저금리에 대한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채 5년물 응찰률 6년래 최저치 기록

이렇게 되면 금리는 작은 변화에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수)에는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금리는 되려 올랐다. 미국 국채 5년물 입찰도 있었는데 응찰률(Bid to Cover)이 235%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경기 수준과 FOMC의 스탠스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채권금리 레벨을 부담스럽게(금리가 더 낮아지기 힘들다) 느끼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 미국채 5년물 응찰률 : 6년래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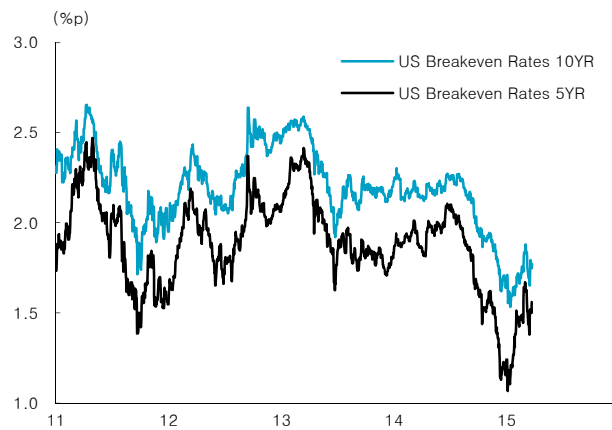


자료: Centix

4월 28~29일 FOMC가 열리지만 지난 번 회의에서 ‘4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the Committee judges that an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remains unlikely at the April FOMC meeting)’ 고 못박은 만큼 4월 인상론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5월에는 FOMC가 없어 기자회견과 경제전망 발표가 예정된 6월까지 공백기가 생긴다. 이 기간 동안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장은 불안해 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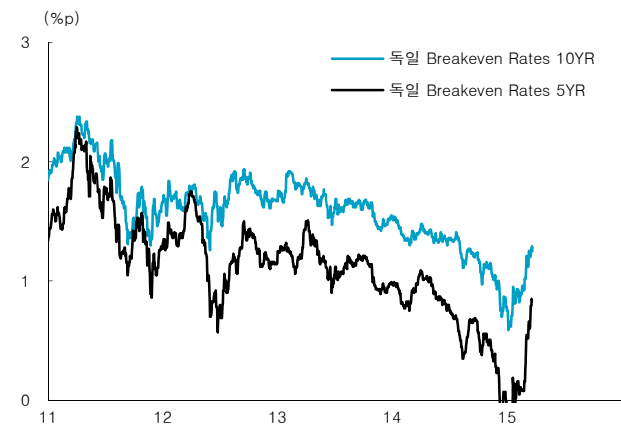
최근 미국과 독일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미국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채권시장 내재 기대 인플레이션 : 미국



자료: Bloomberg

[그림 12] 채권시장 내재 기대 인플레이션 : 독일



자료: Bloomberg

말괄량이 길들이기
: 그리스와 채권시장

3. 투자전략 : 말괄량이 길들이기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는 1594년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다. 이탈리아 북부 파두아의 소문난 부호 뱀티스터의 딸 카트리나는 소문난 말괄량으로 성질이 어찌나 사납고 수다스러운지 접근해 오는 남자조차 없었다. 그러나 베로나에서 온 페트루치오라는 신사가 카트리나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여자로 만들어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택한 방법은 카트리나보다 더 난폭하게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결국 카트리나의 거만한 기는 완전히 꺾이고 무슨 말이든지 고분고분 따르는 숙녀가 된다는 것이 극의 결론이다.

[그림 13] 말괄량이 길들이기



자료: LA Weekly

어찌보면 우리가 2분기에 목도해야 할 시장은 말괄량이 카트리나만큼이나 사나울지도 모르겠다. 우는 아이처럼 저금리를 갈구하던 시장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 나타나는 성난 반응은 올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다. 구조개혁 없이 자금지원만을 바라는 그리스도 어찌보면 독일에게는 말괄량이 카트리나와 같은 존재다.

**2분기 변동성 확대 이후에는
보다 강한 시장 전개될 것**
: 이익 추정치 하향세 멈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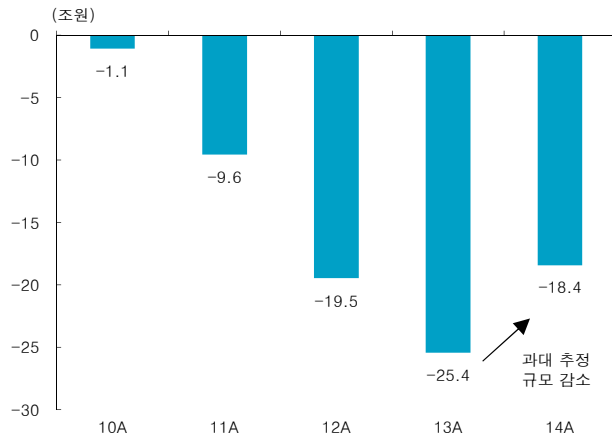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난 파도가 지나가면 말괄량이 카트리나도 현실에 순응하며 온순한 숙녀로 변신한다. 앞으로의 시장도 비슷한 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경기가 회복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동시에 이익 추정치 하향세가 매우 오랜만에 멈췄다는 점이다. 당사 계량분석 담당 안혁 위원은 2011년 이후 지속된 한국 기업의 이익 하향 추세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1 한다면서 ▲ 4분기 어닝쇼크가 크게 축소됐고 ▲ 2015년 예상이익이 6개월째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다 ▲ 그간 이익 하향의 주범이었던 시클리컬 업종의 이익 과대 추정규모가 감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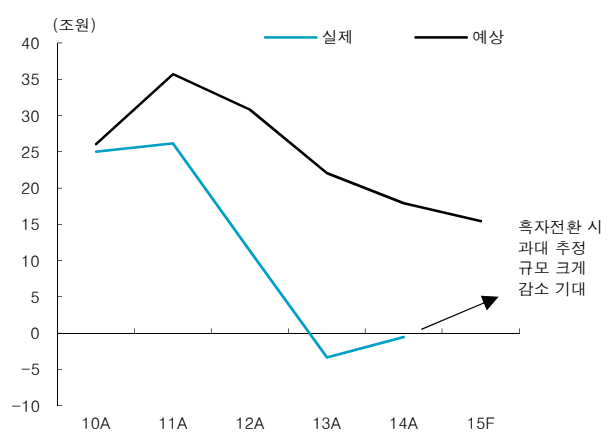
¹ 3월 26일자 <Korea Quant > 4월 포트폴리오: 이익 추정치 하향 추세 마감

특히 2010년 1.1조원에 불과했던 시클리컬 업종의 과대추정 규모가 2013년에는 25.4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전체 과대추정 규모(47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충격을 주었는데 이 과대추정 규모가 2014년에 18조원으로 감소했다. 시클리컬 업종은 2014년에 유난히 대규모 손실처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2015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14] 시클리컬 업종의 과대 추정 규모 추이



[그림 15] 시클리컬 업종의 연도별 예상, 실제 이익 추이



주: 1. 에너지, 화학, 철강/비철, 건설, 조선/기계 업종을 시클리컬 업종으로 정의
2. 과대추정 규모: 전년도 3월 31일 기준 예상치 대비 실제 순이익과의 차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전술한 바와 같이 2분기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수혜를 누렸던 고PER주들 역시 한 차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 대형주와 경기민감주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의 관점에서 재조명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진통은 경기가 회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 조정기에는 상대적으로 방어주들이 선전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IT, 자동차, 소재, 증권, 건설(국내) 등 베타가 높은 경기민감주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본다.

4월 KOSPI 예상밴드 :
1,950~2,060

4월 KOSPI 예상 밴드는 1,950~2,060pt이다. 이는 당사 유니버스 실적 추정치 기준 12MF PER 9.8~10.4배, PBR 0.93~0.99배에 해당한다. KOSPI가 연초 저점인 1,870선에서 10% 반등에 성공했으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지 않아 현 지수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해 2분기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4월의 top pick은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키움증권,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다.

■ 4월 탐픽 :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키움증권,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011170) : 매수(유지), TP : 240,000원 현재가 202,500원

Comments

- 유가 하락은 통상적으로 원재료와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화학제품의 스프레드는 향후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확대 가능성
- 3월부터 시작한 업종 시황의 전반적 개선은 4월에 본격화될 전망.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춘절 이후 복귀한 시장 참여자들이 재고를 축적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또한 4~5월에 집중된 아시아 지역 납사 크래커 정기보수는 재고 축적을 증가시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최근 안정되는 유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에틸렌 업사이클 연장 전망. MEG 역시 정상보다 낮은 재고 수준, 제한된 신규 공급 감안할 때 마진 유지될 것

고려아연(010130) : 매수(유지), TP : 535,000원 현재가 432,000원

Comments

- 2015년 아연 제련수수료가 전년대비 9.9% 상승해 수익성 제고될 것
- 현재 아연 정광은 제련사의 가격 협상력이 높은 Smelter Market이며 향후 2~3년 후에도 지속되어 제련사 수익성 제고 이어질 것
- 2015년 말로 예정된 제2비철단지 완공으로 2016년부터 Top line이 대폭 증가하는데 수익성도 향상되어 2016년 영업이익 80% 증가 예상
- 2014년 2분기에 생산 활동 증가로 비철 소비 증가하며 비철 가격 상승세 이어지며 주가 상승 견인할 전망

키움증권(039490) : 매수(유지), TP : 75,000원 현재가 68,200원

Comments

- 리테일 브로커리지 경쟁이 완화되고, 중소형주 및 코스닥 호황으로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1%p 이상 상승해 15% 중반으로 올라섬
- 단기 상승 모멘텀 제공했던 인터넷은행 관련 제도 윤곽이 3월에 결정되고,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도 사안마다 잇따를 전망
- 채권 보유 규모 크지 않아 1월 중 금리 하락 영향이 크지 않지만, 주식매매수수료 만으로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낼 실적 뒷받침 가능
- 상반기 중 예정된 상/하한가 변동폭 확대는 중소형주 수급에 불확실성이지만, 대형주 및 지수 영향에 미치는 불확실성까지는 아닐 것

LG디스플레이(034220) : 매수(유지), TP : 44,000원 현재가 32,300원

Comments

- 1분기 패널수요와 가격이 예상보다 강해 실적도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
- TV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3월 상반기 일부 패널가격이 하락했지만 32인치를 제외하고 지속되지 않는 분위기
- TV업체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32인치보다는 40인치 이상의 TV판매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 높아짐
- 이 경우 패널의 면적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해 하반기 패널수급도 타이트한 상황 유지될 전망
- 아이폰6/6+ 수요 강세 지속으로 모바일패널 사업의 수익성도 예상보다 좋은 상황
- 이익증가에 따른 ROE 상승과 대형 OLED사업 본격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

현대모비스(012330) : 매수(유지), TP : 360,000원 현재가 246,000원

Comments

- 펀더멘털 개선 지속: 2015년에도 신모델과 친환경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핵심부품매출의 모듈 내 비중 36.5%까지 상승, 모듈 부문 수익성 개선 견인. 장기적으로 ADAS(운전보조장치)가 준중형까지 확산되면서 핵심부품비중이 2016년 40%로 늘어날 것
- 밸류에이션 매력: 현재 주가는 한전 부지 인수 이전 주가 회복하지 못 한 상황. 글로벌 피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지배구조로 인한 디스카운트 과도. 글로벌스 지분 매각 시도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전망
- 금융부문 실적 턴어라운드: 현대라이프 수익성 개선 지속. 연내 흑자 전환으로 추가 유상증자 우려 불식 및 연결손익 개선 전망

** 이 자료는 2015년 3월 30일자로 발간된 <Strategic Insight : 4월 전략 :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부진, 실적 우려 등에 주요 이머징 약세

- ▶ 상해종합지수는 경기둔화 우려 완화, 정부의 미개발 토지 전환매각 허용 등으로 소폭 상승
- ▶ 홍콩H지수는 기업실적 부진 우려, 은행 부실대출 증가, 부동산경기 부양정책 등에 강보합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대로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반전
- ▶ VN지수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CPI 상승, 차익실현 매물 증가 등으로 약세 유지, 550선 위협

상해종합 0.2% 추가 상승
컨슈머서비스, 환경보호,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상승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2% 추가 상승한 3,691p로 마감했다. 주간단위로는 2.0% 올라 3주 연속 상승추세를 이어갔고 장중고점은 3,716p까지 올라섰다. 거래대금은 5,093억 위안으로 전일대비 1,100억위안 축소됐다. 1~2월 공업기업들의 이익지표가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직전대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완화시켜줬다. 중국정부가 미개발 토지들의 전환매각을 허용해주었던 호재로 부동산 업종이 4%가까이 급등했다.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로 이날 중소판지수와 차스닥지수는 각각 1.7%, 1.4%씩 급등했다. 업종별로는 컨슈머서비스(2.1%), 환경보호(1.8%), 소프트웨어(1.8%), 반도체(1.6%), 미디어(1.3%), 제약바이오(1.2%), 하드웨어(1.2%), 자본재(1.1%) 등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에 보험 업종은 1.5% 하락했다.

홍콩H 0.2% 하락
은행주 하락한 반면 부동산, 건설 업종 상승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홍콩H지수는 0.2% 하락해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주간단위로는 2.2% 하락해 3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미국증시가 지역불안과 기업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장을 이어갔던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실적둔화가 계속돼 H지수는 본토증시 대비 약세흐름을 보였다. 경쟁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신모델을 출시했던 소식에 비야디 주가가 1.5%이상 빠졌고 석유주는 전일 급등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은행주들은 실적둔화와 부실대출 증가우려에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다. 부동산경기 부양정책 호재에 힘입어 만과부동산 주가가 3% 넘게 급등했고 증권, 건설, 철도 등의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5% 상승, 시멘트, 에너지 등 관련주 강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5% 반등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최근 들어 루피아 가치가 연속 하락하면서 외환시장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 관련 가능한 범위내 있도록 하겠다고 표명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해외수주 증가, 실적 개선 전망에 시멘트 업종은 상승했다. 그 외 에너지 관련주도 지수 강세에 기여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9% 추가 하락,
유제품, 통신, 수산물, 전력
등 관련주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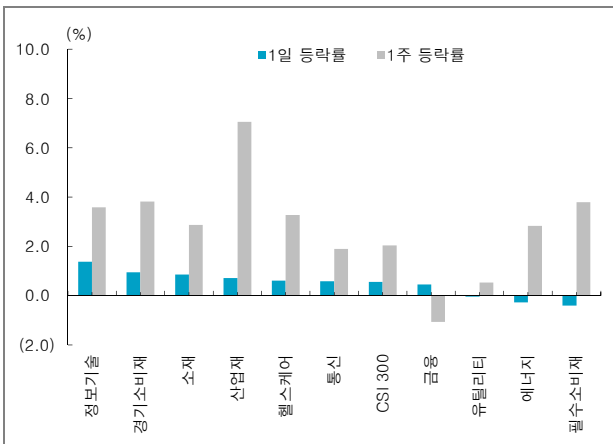
VN지수는 0.9% 추가로 하락했다. 5거래일 연속 내렸으며 550선을 위협했다.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CPI 상승 등으로 발표가 연속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다른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연속 상한선까지 급등한 수산물 업체AGF는 차익실현 부담으로 약세로 전환했고 유제품, 통신, 전력 등 관련주도 하락했다. 반면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대형은행 VCB는 상승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중국 2월 위원회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yoy 0.9% 증가 (직전치 29.4%) 중국 국가통계국, 2월 CPI 상승률 yoy 1.4%, mom 0.6% 기록 중국 2월 외국인직접투자 85.6억달러 기록
태국	2월 수출 증가율 -6.1% (직전치 -3.5%)
태국	3월 20일 외환보유고 1.56억달러 (2월말 1.57억달러)
태국	2월 무역수지 3.9억달러 (직전치 -4.6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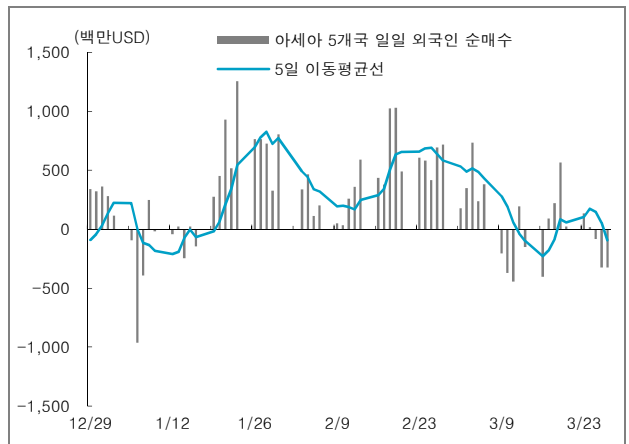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3/27(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691.10	0.24	2.04	11.50	14.11
홍콩 H	11,898.09	-0.18	-2.12	-2.36	-0.72
중국 차스닥	2,323.82	1.40	4.97	20.53	57.89
인도 SENSEX	27,413.18	-0.16	-3.00	-6.64	-0.31
인도네시아 JCI	5,395.89	0.50	-0.87	-1.00	3.23
태국 SET	1,494.50	-0.13	-2.32	-5.83	-0.21
베트남 VN	551.42	-0.85	-4.17	-6.94	1.06
MSCI 이머징마켓	962.46	-1.40	-0.73	-2.81	0.64

주: 27일 오후 5시 5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이틀 연속 하락

- 미국증시는 사우디 등 걸프지역 12개국의 예멘공습으로 중동지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어닝시즌을 앞두고 달러 강세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까지 제기되며 나흘 연속 하락.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반전 후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며 2,019P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중 640P선을 이탈하기도 했으나,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로 하락 폭을 다소 줄이며 640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현대차그룹이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양사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모두 강세를 보였으며, 유선보조금 규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CJ헬러비전이 상한가를 기록.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시백스트로'가 유럽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동아에스티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자회사 스마트스터디의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기록. 또한,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철도·가스관 등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감에 케이디미디어가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지분 40.7%를 보유한 자회사 NS홈쇼핑이 코스피 신규 상장 첫날 차익실현 매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모회사인 하림 홀딩스도 실망감에 8%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현대제철(004020) ▶75,600(+3.70%) 현대하이스코(010520) ▶64,600(+6.60%)	양사 합병 기대감에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이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 - 합병시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냉연 라인을 가져온 현대제철은 해외 냉연 생산 라인 등을 추가로 얻게 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능력은 3,000만톤을 넘어서 글로벌 톱10 철강사로 우뚝 서는 동시에 매출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
CJ헬로비전(037560) ▶11,350(상한가)	통신사 결합상품 규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무선보조금 감소, 유선보조금 증가의 풍선효과가 지속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경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선에도 무선 '단통법'과 유사한 보조금 상한선이 설정될 시 유료방송사업자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상한가
동아에스티(170900) ▶113,500(상한가)	수퍼박테리아 항생제 '시백스트로' 유럽 판매 허가 승인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가 개발한 신약 수퍼박테리아 항생제 '시백스트로'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 - '시백스트로'는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글로벌 신약으로, 이번 승인으로 유럽연합(EU) 가입 28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3개국에 판매가 가능하게 됨
철도/가스관 관련주	한국정부 AIIB 참여 결정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프라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하이스틸(071090), 우원개발(046940, 이상 상한가), 특수건설(026150, +10.12%), 휴스틸(005010, +2.63%), 한국선재(025550, +2.21%)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증시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와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감에 3대 지수 모두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임
- 국내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닥이 주중 650P선을 돌파하며 연일 연중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으나, 미국과 중동발 악재로 투자심리가 외국인 순매도세로 돌아서며 이를 연속 하락하며 코스피는 2,019P로, 코스닥은 640P로 한 주를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광전자	2,970	19.3	산업재	운수창고	동방	3,450	48.1
	소재	섬유의복	원림	26,650	22.2	산업재	기계	퍼스텍	4,465	39.1
	소재	철강금속	하이스틸	24,050	15.1	산업재	종이목재	이건산업	26,000	18.2
	소재	유통업	이화산업	36,800	54.0	산업재	건설업	현대산업	56,100	17.1
	소재	철강금속	만호제강	24,750	15.9	건강관리	서비스업	녹십자홀딩스	27,850	13.4
	소재	비금속	금비	51,500	30.1	건강관리	의약품	삼성제약	6,540	44.7
	소재	화학	도레이케미칼	17,150	15.1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대한방직	77,200	20.8
	소재	기계	삼화왕관	42,000	17.6	경기소비재	화학	한국콜마	64,000	9.6
	소재	화학	대한유화	110,500	9.4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세에스24홀딩스	16,550	17.4
	금융	증권	유안타증권	5,450	22.3	경기소비재	유통업	아티스	2,420	28.4
	금융	기타금융업	메리츠금융지주	12,600	10.5	경기소비재	미분류	삼양통상	124,500	6.0
	산업재	기계	대림통상	8,800	55.8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태양금속	13,950	9.8
	산업재	서비스업	노루홀딩스	26,950	12.8	경기소비재	화학	동일고무벨트	14,600	21.7
	산업재	미분류	동원	5,230	18.6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SBS	39,900	9.5
	산업재	비금속	아이에스동서	73,700	15.2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G IIR	9,110	4.7
	산업재	운수장비	한국항공우주	52,000	10.2	경기소비재	화학	한국화장품제조	39,650	101.3
	산업재	화학	조광페인트	15,850	31.5	필수소비재	음식료	오리온	1,133,000	16.0
	산업재	서비스업	한미글로벌	13,550	17.3	필수소비재	미분류	사조산업	87,900	24.3
	산업재	화학	노루페인트	10,100	20.8					
코스닥	IT	디지털컨텐츠	한빛소프트	9,520	19.9	산업재	전문건설	우원개발	2,705	22.7
	IT	기계장비	디에스케이	6,000	36.1	산업재	금속	케이피티	5,580	28.6
	IT	정보기기	지아이블루	6,750	28.1	산업재	금속	이건창호	4,870	38.0
	IT	IT부품	이엠텍	15,600	16.0	산업재	기타제조	디비케이	4,545	15.9
	IT	정보기기	백산OPC	1,580	31.7	산업재	화학	와토스코리아	15,350	12.9
	IT	IT부품	필코전자	1,480	32.7	산업재	종합건설	서희건설	1,370	15.6
	IT	소프트웨어	큐브스	3,510	21.0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인피니트헬스케어	9,250	11.0
	IT	IT부품	옵트론텍	8,190	15.5	건강관리	의료기기	디오	12,300	26.9
	IT	IT부품	이라이콤	21,750	10.4	건강관리	도매	녹십자셀	46,150	21.1
	IT	인터넷	KTH	14,700	7.7	건강관리	화학	네오팜	23,400	36.0
	IT	IT부품	아비코전자	7,050	9.6	건강관리	도매	씨티씨바이오	20,250	10.7
	IT	반도체	피에스엠씨	456	21.9	건강관리	제약	경남제약	3,875	48.2
	IT	반도체	ISC	41,200	7.0	건강관리	제약	에스텍파마	12,950	48.0
	소재	금속	삼현철강	4,485	6.7	경기소비재	운송부품	넥센테크	4,780	3.9
	소재	금속	코센	1,800	31.4	경기소비재	소매	한국테크놀로지	3,400	26.4
	소재	종이목재	산성엘엔에스	69,900	46.8	경기소비재	미분류	뉴프라이드	1,100	19.6
	소재	종이목재	대양제지	18,200	13.8	경기소비재	도매	아가방컴퍼니	8,900	22.4
	산업재	종합건설	동원개발	39,750	9.7	경기소비재	통신장비	대명엔터프라이즈	1,400	25.6
	산업재	전문기술	오르비텍	5,000	37.9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네이처셀	3,280	77.8

주) 상기 종목들은 3월 27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영풍정밀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영풍정밀 (036560)	11,000 (+7.8)	10,20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의 부진으로 2014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저가 주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두 자리수대 회복 - 제품믹스 개선, 매출 다변화, 증설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실적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 유효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가치가 시가총액의 150%(PBR 0.5배)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 내재
진성티이씨 (036890)	6,570 (+15.9)	5,67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예상. 해외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는 점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 -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을 인하 결정, ECB의 양적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재안정화 기대 유효
오로라 (039830)	12,700 (-7.6)	13,75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캐릭터 완구 1위 업체로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즈로 사업 확장 중 - 2015년 1월, '유후와 친구들' 시즌 3 방영 시작. 유럽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전 세계 캐릭터 완구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지역에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계획 -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경영 효율성 강화로 영업이익률 10%대 안착 예상
바이오랜드 (052260)	27,100 (+10.6)	24,50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의 중국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중국 해문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전방산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다변화된 거래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모두투어 (080160)	32,950 (+32.1)	24,9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점유율 개선과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신사업 실적 기여 등으로 실적 개선 예상 - 여행수요의 우상향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월호 사태 및 동남아 시위 등으로 주춤했던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예상 - 인바운드 자회사(모두투어인터내셔널)의 이익 턴어라운드, 모두스테이(호텔 3개)의 이익 개선, 그리고 기타 자회사의 이익 개선 등을 연결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할 필요
파트론 (091700)	14,250 (+13.1)	12,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사 고가 스마트폰의 전방카메라 화소수가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의 2015년 상반기 플래그쉽 모델에는 기존 2MP에서 5MP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됨 - 고마진 센서부문(온도, 적외선, 지문인식, 근접, 조도, 압력, 제스처, 가속도 등의 센서모듈 패키징)의 매출 증가가 안테나 부문의 제품믹스 악화를 상쇄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모비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모비스 (012330)	246,000 (-0.8)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173,500 (-3.9)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72,000 (+7.8)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788,000 (+27.5)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삼성생명 (032830)	95,900 (-16.6)	115,000 (1/2)	17,694	657	1,341	6,707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성과 가시화 예상 - 삼성자산운용이 연결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배주주 기준 연결순이익은 증가와 경합적인 투자이익률 개선도 가능할 전망 -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초과자본 이슈가 있는 계열사들의 배당정책 변화 등에 힘입어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 상존 				
SK하이닉스 (000660)	45,800 (-4.1)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삼성생명,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3/20(금)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7.24	2,036.59	2,041.37	2,042.81	2,022.56	2,019.80
	등락폭	-0.65	-0.65	4.78	1.44	-20.25	-2.76
	등락종목						
	상승(상한)	408(8)	433(8)	484(5)	467(8)	341(6)	368(9)
	하락(하한)	410(0)	367(1)	315(0)	324(0)	457(0)	447(1)
	ADR	109.37	107.90	107.47	107.82	105.05	103.68
	이격도						
	10 일	101.68	101.43	101.38	101.14	99.88	99.58
	20 일	101.97	101.76	101.84	101.78	100.69	100.47
	투자심리	40	40	50	60	6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52	315	329	423	342	443
	거래대금 (십억 원)	5,195	4,686	4,665	5,109	5,155	5,035
	코스닥지수	640.08	640.29	641.87	651.05	642.53	640.12
	등락폭	8.27	0.21	1.58	9.18	-8.52	-2.41
	등락종목						
	상승(상한)	408(12)	433(23)	484(12)	467(24)	341(12)	374(7)
	하락(하한)	410(4)	367(3)	315(6)	324(4)	457(2)	610(5)
	ADR	106.33	104.90	103.21	105.04	100.51	95.48
	이격도						
	10 일	101.51	101.37	101.30	102.24	100.67	100.20
	20 일	102.04	101.87	101.96	103.13	101.58	101.07
	투자심리	40	4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579	530	526	535	552	577
	거래대금 (십억 원)	3,368	3,011	2,659	3,482	3,594	3,15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 재 권	매수	2,656.8	1,297.6	1,053.0	351.3	109.2	191.1	78.8	25.2	297.377	50.9
	매도	2,502.2	1,392.9	1,073.1	208.5	110.5	329.7	75.3	60.6	288.5	90.2
	순매수	154.6	-95.3	-20.1	142.7	-1.3	-138.5	3.5	-35.4	8.9	-39.2
	3월 누계	163.7	2,635.2	-2,646.7	-1,472.9	224.1	-1,836.1	-286.1	27.4	696.9	-152.3
	15년 누계	-1,392.9	2,918.1	-2,788.2	-2,347.8	86.9	-2,450.7	-387.8	134.2	2,177.0	1,262.9
코 스 닥	매수	2,869.1	135.2	150.8	45.3	18.1	30.9	12.8	5.0	38.6	25.2
	매도	2,786.5	185.9	178.7	61.1	21.4	45.1	9.6	6.5	34.9	29.2
	순매수	82.6	-50.6	-27.9	-15.8	-3.3	-14.2	3.2	-1.5	3.7	-4.0
	3월 누계	512.5	-84.6	-290.6	6.6	-52.3	-120.6	-53.4	14.1	-84.9	-137.3
	15년 누계	546.0	-208.7	182.7	-107.2	153.8	2.3	-85.7	18.8	200.7	-520.0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5,238	전기,전자	-28,991
종이,목재	1,674	서비스업	-22,879
비금속광물	933	운수장비	-14,244
현대엘리베이	5,380	삼성전자	-14,140
KT&G	4,071	제일모직	-12,427
SK텔레콤	3,945	아모레퍼시픽	-10,669
동아쏘시오홀딩스	2,799	현대하이스코	-9,636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745	LG전자	-6,71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8,001	운수장비	-18,287
서비스업	15,106	건설업	-13,689
화학	8,084	통신업	-5,394
삼성전자	31,900	SK하이닉스	-20,612
현대제철	10,863	현대차	-13,960
SK C&C	7,424	POSCO	-12,437
OCI	5,375	현대건설	-6,238
KT&G	4,040	GS건설	-5,70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884	전기,전자	-8,576
보험	1,184	서비스업	-7,189
유통업	972	운수장비	-2,758
KT	2,108	SK C&C	-7,541
KODEX 레버리지	1,136	삼성전자	-5,638
삼성화재	1,083	현대차	-2,808
두산	780	현대하이스코	-2,085
한샘	691	SK하이닉스	-1,36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7,035	운수장비	-6,119
제조업	5,455	건설업	-5,875
통신업	2,717	전기가스업	-5,278
KT&G	4,773	파워 K200	-16,464
삼성전자	3,821	KODEX 레버리지	-10,282
현대하이스코	2,710	SK하이닉스	-6,157
현대제철	2,619	현대차	-5,592
S-Oil	2,604	SK C&C	-5,43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20,100	건설업	-37,238
전기,전자	18,734	운수장비	-35,030
철강및금속	7,121	전기가스업	-10,278
삼성전자	57,753	KODEX 레버리지	-24,957
KT&G	20,046	SK하이닉스	-22,436
KODEX 인버스	18,153	제일모직	-21,619
한미약품	11,010	현대차	-19,336
현대제철	8,826	아모레퍼시픽	-15,825
롯데케미칼	7,696	GS건설	-14,208
S-Oil	7,340	POSCO	-11,909
한미사이언스	7,268	삼성SDI	-10,217
현대하이스코	7,234	대림산업	-10,134
LG화학	6,512	LG전자	-9,75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5,172	전기,전자	-123,366
건설업	13,617	철강및금속	-21,399
통신업	13,258	제조업	-9,074
NAVER	12,809	삼성전자	-78,737
SK텔레콤	10,297	SK하이닉스	-49,882
SK이노베이션	8,801	KT&G	-21,821
GS건설	8,379	POSCO	-15,870
삼성에스디에스	7,902	현대하이스코	-7,683
아모레퍼시픽	6,949	KB금융	-6,501
제일모직	5,906	LG화학	-5,478
SK C&C	4,933	LG전자	-5,458
삼성전기	4,630	롯데케미칼	-4,653
효성	4,284	한미약품	-4,65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도매	2,236	디지털컨텐츠	-3,014
인터넷	433	통신장비	-1,637
컴퓨터서비스	412	소프트웨어	-1,310
대봉엘에스	1,354	코스온	-1,691
리드코프	783	게임빌	-1,551
씨티씨바이오	745	에이블씨엔씨	-1,148
셀트리온	644	바이로메드	-1,138
MPK	520	메디톡스	-85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종이,목재	2,257	연구,개발	-1,410
전문기술	960	음식료,담배	-905
도매	912	제약	-552
삼성엘엔에스	2,257	이지바이오	-1,521
컴투스	1,532	바이로메드	-1,410
CJ E&M	935	게임빌	-1,350
씨티씨바이오	931	메디포스트	-1,141
코나아이	802	파트론	-97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637	출판,매체복제	-796
운송장비,부품	293	반도체	-388
제약	292	금융서비스	-336
블루콤	580	에스엠	-796
이스트소프트	402	씨티씨바이오	-598
에스텍파마	338	게임빌	-461
동서	292	CJ E&M	-349
일지테크	255	알톤스포츠	-34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268	통신장비	-3,598
반도체	765	출판,매체복제	-1,022
방송서비스	738	도매	-805
휴온스	1,037	코스온	-3,860
GS홈쇼핑	952	셀트리온	-1,816
키이스트	867	에스엠	-1,358
리노공업	545	로만손	-957
NICE평가정보	518	보령메디앙스	-561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6,364	반도체	-6,927
도매	3,622	통신장비	-6,027
종이,목재	3,431	음식료,담배	-3,553
SK브로드밴드	6,209	코스온	-5,138
셀트리온	3,505	게임빌	-3,934
삼성엘엔에스	3,410	바이로메드	-3,587
키이스트	2,281	CJ E&M	-2,773
다음카카오	2,172	메디포스트	-2,677
씨티씨바이오	1,307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571
휴온스	1,210	에이블씨엔씨	-2,281
슈프리마	1,180	메디톡스	-2,239
오스템임플란트	1,132	모베이스	-2,205
컴투스	1,128	이지바이오	-2,02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126	제약	-16,823
음식료,담배	1,483	IT부품	-4,524
출판,매체복제	1,301	운송장비,부품	-3,259
이오테크닉스	4,300	셀트리온	-9,519
메디포스트	2,462	메디톡스	-4,059
인피니트헬스케어	1,185	바이넥스	-2,991
모두투어	1,095	성우하이텍	-2,597
매일유업	1,089	파트론	-2,155
나이스정보통신	939	아가방컴퍼니	-1,565
에스엠	902	에이블씨엔씨	-1,464
OCI머티리얼즈	873	KH바텍	-1,409
AP시스템	830	원익IPS	-1,338
실리콘웍스	805	KG이니시스	-1,29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29 일	S&T모티브	28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20 일	효성	18 일
휴켄스	11 일	삼성정밀화학	16 일
KINDEX200	10 일	CJ대한통운	13 일
삼성전자	9 일	도레이케미칼	13 일
삼성증권	9 일	광전자	13 일
포스코플랜텍	9 일	대한제분	12 일
한국단자	8 일	삼성카드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브로드밴드	14 일	모두투어	13 일
에스에프에이	14 일	실리콘웍스	7 일
크루셜텍	7 일	CJ오쇼핑	6 일
솔브레인	6 일	AP시스템	6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매일유업	5 일
동서	4 일	시그네틱스	5 일
파라다이스	4 일	아트라스BX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71,177	KB금융	50,212
KT&G	40,794	SK하이닉스	47,161
삼성전기	40,179	삼성SDI	40,375
KODEX 인버스	38,354	NAVER	40,066
현대제철	33,559	LG	32,990
롯데케미칼	25,175	현대제철	27,110
TIGER 원유선물(H)	19,860	SK텔레콤	23,654
NAVER	19,266	효성	23,493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브로드밴드	32,390	SK브로드밴드	7,008
CJ E&M	11,931	이오테크닉스	6,515
에스에프에이	8,928	GS홈쇼핑	5,117
파라다이스	6,312	이라이콤	5,115
키이스트	6,224	코스온	4,337
한국토지신탁	5,603	씨티씨바이오	4,223
녹십자셀	4,300	토비스	3,564
유진기업	3,965	AP시스템	3,37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증권	6,761	3,295	10,055
기계	6,664	614	7,278
화학	4,746	1,124	5,870
KODEX 인버스	18,153	614	18,767
현대제철	8,826	3,744	12,570
삼성에스디에스	3,757	7,902	11,658
LG이노텍	4,946	2,975	7,921
현대엘리베이	5,835	922	6,757
TIGER 원유선물(H)	5,922	183	6,105
SK	3,974	1,751	5,724
LG디스플레이	1,003	3,164	4,167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548	1,077	3,625
삼성증권	3,080	531	3,61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서비스	6,364	582	6,946
종이, 목재	3,431	818	4,249
사업지원	2,632	1,031	3,663
산성엘엔에스	3,410	497	3,907
씨티씨바이오	1,307	448	1,755
이엠텍	1,115	196	1,311
인피니트헬스케어	27	1,185	1,211
아프리카TV	258	788	1,046
로엔	516	329	845
MPK	516	297	813
크루셜텍	23	699	722
유진기업	187	488	675
이스트소프트	419	256	67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	25 일	휴켄스	11 일
LG전자	20 일	세종공업	10 일
POSCO	17 일	한솔홀딩스	8 일
KPX케미칼	17 일	팬오션	8 일
모토닉	15 일	동국제강	6 일
한라비스테온공조	15 일	일성신약	6 일
금호석유	13 일	에스엘	6 일
쿠쿠전자	11 일	OCI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85 일	파라다이스	23 일
인터파크	13 일	루멘스	12 일
태웅	13 일	성우하이텍	11 일
태광	10 일	태광	8 일
위메이드	8 일	서부T&D	5 일
CJ오쇼핑	7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시그네틱스	6 일	주성엔지니어링	5 일
코미팜	6 일	다산네트웍스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107,232	삼성전자	-406,141
제일모직	-66,466	신한지주	-54,303
현대모비스	-48,455	호텔신라	-29,699
기아차	-46,505	LG생활건강	-23,403
KB금융	-42,906	키움증권	-20,063
삼성SDI	-40,590	KT&G	-19,852
POSCO	-39,512	KT	-16,284
아모레퍼시픽	-36,320	OCI	-15,972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16,795	셀트리온	-28,329
코스온	-13,840	다음카카오	-17,000
게임빌	-5,837	성우하이텍	-10,528
위메이드	-5,576	파라다이스	-9,143
이지바이오	-5,105	인터파크	-8,131
GS홈쇼핑	-4,439	삼성엘앤에스	-7,249
CJ오쇼핑	-4,406	KH바텍	-4,881
코오롱생명과학	-3,608	셀바이오텍	-3,93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1,704	-2,063	-3,767	
음식료품	872	3,520	4,392	
화학	4,746	1,124	5,870	
SK하이닉스	-22,436	-49,882	-72,318	
POSCO	-11,909	-15,870	-27,779	
KODEX 레버리지	-24,957	-333	-25,289	
LG전자	-9,757	-5,458	-15,215	
대우조선해양	-4,827	-238	-5,065	
현대글로벌비스	-3,973	-430	-4,402	
BS금융지주	-2,705	-907	-3,612	
스카이라이프	-2,333	-1,122	-3,455	
사조산업	-2,361	-563	-2,924	
넥센타이어	-2,742	-129	-2,87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122	-16,823	-18,945	
IT부품	-1,763	-4,524	-6,287	
통신장비	-6,027	-206	-6,233	
메디톡스	-2,239	-4,059	-6,298	
게임빌	-3,934	-12	-3,946	
바이로메드	-3,587	-318	-3,906	
파트론	-1,631	-2,155	-3,786	
에이블씨엔씨	-2,281	-1,464	-3,744	
바이넥스	-222	-2,991	-3,212	
원익IPS	-1,054	-1,338	-2,392	
KH바텍	-614	-1,409	-2,023	
KG이니시스	-658	-1,293	-1,951	
미디어플렉스	-881	-1,025	-1,90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1,247	58,643	
OCI	164	17,217	
기아차	290	13,121	
한미약품	52	12,331	
삼성전자	7	10,353	
현대차	45	7,694	
삼성전기	81	6,557	
현대산업	113	6,21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541	39,856	
다음카카오	91	10,360	
바이로메드	76	5,531	
메디포스트	28	2,280	
파라다이스	86	1,852	
인터파크	192	1,776	
이오테크닉스	11	1,465	
원익IPS	120	1,434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895	6,956,240	
현대중공업	10,670	1,312,460	
POSCO	4,855	1,235,629	
SK하이닉스	20,864	980,587	
삼성에스디에스	3,269	869,495	
현대차	4,977	841,090	
아모레퍼시픽	237	774,882	
제일모직	5,011	749,10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067	1,408,732	
다음카카오	6,558	737,768	
CJ E&M	418	551,342	
컴투스	1,449	271,879	
위메이드	1,676	246,144	
파라다이스	11,175	240,264	
서울반도체	7,529	138,910	
에스엠	3,654	130,070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통신업	3,648	보험	-7,573
증권	2,664	운수창고	-2,379
철강및금속	1,216	전기,전자	-1,553
한진해운	2,956	한화생명	-8,482
SK증권	2,437	현대상선	-4,556
LG유플러스	1,975	대우조선해양	-2,505
금호타이어	1,334	SK하이닉스	-2,146
대우건설	1,188	KODEX 200	-2,146
기아차	1,025	현대산업	-1,596
SK텔레콤	987	흥아해운	-752
메리츠화재	974	하나금융지주	-713
삼성중공업	860	한솔홀딩스	-573
SG세계물산	860	현대증권	-50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제약	1,192	통신서비스	-4,508
금속	541	IT부품	-860
종합건설	416	화학	-368
셀트리온	1,003	SK브로드밴드	-4,504
케이엘티	550	파트론	-880
성광벤드	378	심텍	-346
파라다이스	377	시그네틱스	-297
서희건설	359	HB테크놀로지	-247
팜스토리	295	포스코 ICT	-246
원익IPS	288	에스앤씨엔진그룹	-214
차이나그레이트	269	유진기업	-169
캠시스	247	DMS	-153
태광	242	오픈베이스	-14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외국인	2,918.1	2,635.2	113.4	143.7	63.0	115.9	-113.8	-95.3
기관계	-2,788.2	-2,646.7	-357.9	-8.6	-84.9	-175.9	-68.4	-20.1
(투신)	-2,450.7	-1,836.1	-508.7	-58.8	-92.0	-80.8	-138.6	-138.5
(연기금)	2,566.2	892.1	148.5	50.5	79.4	-31.7	38.1	12.2
(은행)	134.2	27.4	-34.5	-1.2	3.0	0.8	-1.7	-35.4
(보험)	86.9	224.1	36.1	46.3	1.0	-26.3	16.4	-1.3
개인	-1,392.9	163.7	370.0	-113.8	40.1	101.6	187.5	154.6
기타	1,262.9	-152.3	-125.5	-21.3	-18.1	-41.5	-5.4	-39.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3/20(금)	3/23(월)	3/24(화)	3/25(수)	3/26(목)
KOSPI	1,997.1	2,011.3	1,915.6	2,037.2	2,036.6	2,041.4	2,042.8	2,022.6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17,224.9	17,590.3	17,776.0	17,963.5	18,360.7
(증감액)	334.1	-3,802.5	1,630.7	-915.9	365.4	185.7	187.5	397.2
(회전율)	26.7	29.9	34.0	49.7	43.8	41.2	47.8	47.7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865.0	180.3	85.0	110.4	418.7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2,925.7	2,941.8	2,954.0	2,941.3	2,950.2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347.9	3,359.8	3,389.3	3,407.0	3,425.8
미수금	1,241.0	929.0	1,176.0	140.2	147.5	135.9	121.8	110.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3/20(금)	3/23(월)	3/24(화)	3/25(수)	3/26(목)
전체 주식형	78,532	-1,719	-2,156	100	-6	-414	323	153
(ex. ETF)		-1,356	-1,030	-124	-37	-81	-76	-124
국내 주식형	62,286	-1,872	-2,626	-22	-77	-436	316	124
(ex. ETF)		-1,524	-1,504	-247	-107	-103	-83	-154
해외 주식형	16,247	153	470	122	70	22	7	29
(ex. ETF)		168	474	122	70	22	7	29
주식 혼합형	9,995	-574	-291	-12	-12	-19	-46	-2
채권 혼합형	25,220	-2,031	567	-9	-133	82	38	-14
채권형	76,602	3,974	574	132	31	40	85	42
MMF	106,803	24,134	6,968	-298	40	-966	-999	-5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한 국	2,622	2,374	-175	130	57	105	-103	-72
대 만	3,877	-1,253	-292	65	-29	-106	-367	-628
인 도	5,841	1,528	773	-	-	-	-	-
인도네시아	428	-423	469	-30	-74	-31	-25	-
태 국	-258	82	629	14	-12	-40	-37	-
남아공	833	1,000	705	230	143	92	171	-
필리핀	983	83	69	2	-2	24	35	11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3/20(금)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회사채 (AA-)	2.43	2.06	2.06	2.06	2.05	2.04	2.03
회사채 (BBB-)	8.26	7.96	7.95	7.95	7.94	7.94	7.93
국고채 (3년)	2.10	1.80	1.78	1.80	1.79	1.78	1.77
국고채 (5년)	2.28	1.90	1.89	1.89	1.87	1.87	1.85
국고채 (10년)	2.60	2.21	2.22	2.19	2.17	2.18	2.18
미 국채 (10년)	2.20	1.93	1.91	1.87	1.92	1.99	-
일 국채 (10년)	0.33	0.33	0.31	0.31	0.33	0.33	-
원/달러	1,099.30	1,123.00	1,114.60	1,104.60	1,100.90	1,108.00	1,103.30
원/엔	920.30	931.02	931.86	922.65	922.65	929.76	924.42
엔/달러	119.45	120.62	119.61	119.72	119.72	119.17	119.35
달러/유로	1.22	1.08	1.09	1.09	1.09	1.09	1.08
DDR3 1Gb (1333MHz)	1.34	1.28	1.28	1.28	1.28	1.28	-
DDR3 2Gb (1333MHz)	2.21	2.20	2.20	2.20	2.20	2.18	-
NAND Flash 16Gb (MLC)	2.18	2.02	2.02	2.02	1.98	1.96	-
CRB 지수	233.24	214.65	215.75	215.53	217.16	219.48	-
LME 지수	2,907.6	2,786.0	2,814.9	2,813.1	2,795.9	2,812.0	-
BDI	782	591	594	597	598	598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5.72	47.45	47.51	49.21	51.43	-
금 (달러/온스)	1,185.50	1,183.10	1,186.25	1,191.50	1,195.60	1,203.1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3	24	25	26	27
美> 2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4.88, 4.90, 4.82)	中> 3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49.2, 50.5, 50.7) 유럽> 3월 예비 마킷 제조업 PMI (51.9, 51.5, 51.0) 美> 2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2%, 0.2%, -0.7%) 2월 신규주택매매(천건) (539, 464, 481)	韓> 4분기 최종 GDP YoY (2.7%, n/a, 2.7%) 美> 2월 내구재주문 MoM (-1.4%, 0.2%, 2.8%)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07.9, 107.3, 106.8)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Bullard 연준이사 연설	日> 2월 실업률 (3.5%, 3.5%, 3.6%)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2%, 2.3%, 2.4%) 美> 4분기 GDP QoQ (n/a, 2.4%, 2.2%) 3월 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n/a, 91.8, 91.2)
30	31	4/1	2	3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日> 2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1.9%, 3.7%) 독일> 3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4%, 0.9%)	美> 3월 소비자지대지수 (n/a, 96.6, 96.4) 유럽> 2월 실업률 (n/a, 11.2%, 11.2%)	韓> 3월 수출 YoY (n/a, -1.8%, -3.4%)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5%, 0.5%) 美> 3월 ISM 제조업지수 (n/a, 52.5, 52.9) 中> 3월 HSBC 제조업 PMI (n/a, 49.4, 49.2)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n/a, 49.7, 49.9) 유럽> 3월 마킷 제조업 PMI (n/a, 51.9, 51.9)	美> 2월 무역수지(십억 달러) (n/a, -41.3, -41.8) 日> 3월 본원통화 YoY (n/a, n/a, 36.7%) 실적발표> 美 카맥스, 마이크론	美> 3월 실업률 (n/a, 5.5%, 5.5%)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 변동(천명) (n/a, 250, 295)
6	7	8	9	10
日> 2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독일> 3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美> 3월 소비자지대지수 유럽> 2월 실업률	日> BOJ 통화정책회의 2월 BOP 경상수지 유럽> 3월 소매판매 MoM	韓> 금통위 금리 결정 독일> 2월 산업생산 SA MoM	中>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신규대출 (~15일) 3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